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단권 축약본(새물결플러스 2015, 존 볼트 편)

바빙크 · 5장 성경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단권 축약본(존 볼트 편, 새물결플러스 2015) 1부 교의신학 서론 5장 「성경」, 175–208쪽 (재료 표기 기준), 단락 [106]–[117]

🧭 흐름 한눈에

바빙크는 먼저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듣는다. 구약 예언자들의 의식에서 시작해, 예수와 사도들이 구약을 대한 태도, 사도들의 글이 정경이 되는 과정까지 따라간다. 이어서 교부 시대부터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근대 비평까지 교회가 영감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살핀다. 그 길에서 '받아쓰기' 식의 과장도, '종교 부분만 영감되었다'는 축소도 모두 비판한다. 그다음 자기 답을 내놓는다. 바로 유기적 영감이다. 하나님이 저자의 인격 전체를 도구로 쓰셔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사람의 글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비평과 의심에 답한다. 성경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고, 믿음은 싸움이며, 성경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이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결론으로 장을 맺는다.

📜 절별 정리

📜 1. [106] 구약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한다: 예언, 토라, 역사서·시가서, 정경의 형성

바빙크는 영감 교리가 구약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고 출발한다. 여기서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움직여 그분의 말씀을 쓰게 하신 일을 말한다. 예언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또렷이 구별했고, 거짓 예언자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자”,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라고 고발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밝히는 본문은 많지 않다. 그래도 기록은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꼭 필요한 단계였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입으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졌다. 비평학자들은 예언자들이 '윤리적 유일신 신앙'(하나님은 한 분이고 도덕적인 분이라는 믿음)을 처음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바빙크는 이에 반대한다. 예언은 토라(모세 율법)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전제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계시라는 것이다. 역사서는 언약과 율법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한 '예언적 역사'다. 시가서는 앞서 주어진 계시를 삶에 적용한다. 이 책들은 율법이 성소에 보관되고, 시편과 잠언이 모이고, 후대 예언자가 앞선 예언서를 읽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 정경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책들의 목록이다. 외경(정경에 들지 않은 유대 문헌)을 함께 실은 70인역(구약의 고대 그리스어 번역)조차 정경적인 책들의 권위를 증언한다.

1.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을 구별했다
2. 거짓 예언자 =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는 자
3. 기록된 말씀도 입으로 한 말씀과 같은 권위
4. 예언은 토라와 언약 위에 선다(발명이 아니다)
5. 정경은 책이 쓰이고 읽히는 과정에서 인정됐다

> **신명기 18:18**
>
>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예언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원형
>
>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 **예레미야 1:9**
>
>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에 말씀을 두셨다는 직접 증언
>
>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말씀을 '먹었다': 받은 말씀과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표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23:16

거짓 예언자는 자기 마음의 묵시를 말한다는 고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에스겔 13:2-3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경고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레미야 36:2

하나님이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심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신명기 4:2

받은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엄숙한 의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사야 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민수기 12:6-8

다른 예언자와 구별되는 모세의 독특한 지위

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호세아 6:7

예언이 이미 있던 언약을 전제한다는 증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열왕기하 17:7-23

역사서가 언약과 율법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한 예

7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9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11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12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

사무엘하 23:2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잠언 25:1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을 편집함: 정경이 모여 가는 과정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다니엘 9:2

후대 예언자가 앞선 예언서(예레미야)를 권위 있게 읽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 2. [107] 예수와 사도들에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16 읽기

예수와 사도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책으로 대했다. 그들은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말씀하되”라는 말로 논쟁을 끝냈고, 자기 행동과 가르침의 근거를 구약에서 찾았다. 예수는 하나님 또는 성령이 성경의 원래 저자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저자도 구약 인용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소개한다. 그들이 보기에 성경의 권위는 단어 하나, 점 하나에까지 미쳤다. 신약 저자들은 구약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때로 원래 저자가 의식한 것보다 더 깊은 뜻을 끌어낸다. 그래도 바빙크는 이것이 구약의 권위를 깎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성령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말씀에 넓고 깊은 뜻을 담아 두셨다는 이해가 그 밑에 있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구약의 권위를 확증하는 두 핵심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3:16과 베드로후서 1:19, 21을 꼽는다. 디모데후서 3:16의 번역 논쟁도 정리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또한 유익하다”는 번역은 그리스어 문법상 어색하다. “모든 글은 일반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번역은 완전히 틀렸다. 남는 선택지는 “성경 전체가” 또는 “성경의 각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두 가지인데, 내용상 차이는 없다.

2. 예수: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성령
3. 권위는 단어 하나, 점 하나까지 미친다
4. 신약의 구약 사용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는 것
5. 디모데후서 3:16: '전체'든 '각 부분'이든 뜻은 같다

마태복음 4:4

"기록되었으되": 예수가 구약을 최종 권위로 쓰심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의 권위는 깨질 수 없다

>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마태복음 5:17-18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단어까지 미치는 권위

>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복음 16:17

율법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

>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갈라디아서 3:16

단수 '자손' 한 단어에 기대는 바울의 논증

>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 성령이 저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마가복음 12:36

같은 내용의 평행 본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7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구약 인용 = 성령의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로마서 15:4

전에 기록된 것은 모두 우리 교훈을 위한 것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10-12

예언자 속의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16

성경 전체(또는 각 부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베드로후서 1:19-21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나온 것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3. [108]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고 그 증언을 맡은 사도들

바빙크는 성경의 자기증언을 그리스도와 떼어 놓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알리시는 말씀(로고스)이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예'가 되는 '아멘'이시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는 가르침은 예수가 전하신 말씀의 중요한 일부다. 그러니 예수가 이 점에서 틀렸다면, 그분은 신앙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틀리신 셈이고, 더는 최고의 예언자일 수 없다. 예수를 선생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성경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는 직접 글을 남기지 않으셨다. 대신 자기 증언이 순수하게 전해지도록 사도들을 택하고 준비시키셨다. 사도들은 예수를 보고 들은 증인이다. 그들이 이 일을 충실히 하도록 진리의 영이 주어졌다. 성령은 사도들의 성품, 은사, 기억, 판단을 그대로 쓰시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다만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 밖으로 새 내용을 더하지는 않으신다. 오순절 뒤 사도들은 교회를 이끌었고, 주님과 같은 권위로 말하고 글을 썼다. 바울은 특히 분명하다. 그는 자기 복음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고, 자기가 전한 말과 글, 표현과 단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다. 교회의 판단에 호소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었지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가 참 예언자인지는 바울의 글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는지로 드러난다고 했다.

1. 성경관은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다
2. 예수가 성경에 대해 틀렸다면 최고의 선생일 수 없다

5. 바울: 내 말과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18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심

>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계시록 3:14

그리스도는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고린도후서 1:20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서 '예'가 된다

>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요한복음 3: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18:37

예수는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

>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1

사도는 듣고 보고 만진 증인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행전 1:8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26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13-14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계시록 22:18-19

기록된 예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사도적 글의 권위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더하실 것이요 [19]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갈라디아서 1:12

바울의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왔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린도전서 2:13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전한다: 표현까지 미치는 영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말로나 편지로나 받은 전통을 지키라: 글의 권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고린도전서 14:37

신령한 자라면 바울의 글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할 것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 **고린도전서 10:15**
> 교회의 판단에 호소하지만 승인이 아니라 지지를 얻으려는 것
>
>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 4. [108] 신약 정경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섯 가지 뜻

사도들의 글은 처음 받은 교회에서부터 권위 있는 글로 받아들여졌고, 곧 다른 교회로 돌려 읽히면서 권위가 넓어졌다. 베드로후서 3:16은 바울 서신이 “다른 성경”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세기 후반의 페쉬타(시리아어 성경)와 무라토리 정경 목록은 신약 대부분이 구약과 같은 권위를 누렸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2서·3서를 두고는 한동안 이견이 있었다. 4세기 후반 공의회들(저자 표기로 라오디케아 366, 히포 393, 카르타고 397)이 이 책들을 포함해 정경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바빙크는 교회가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 이어진 관행을 '승인하고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못 박는다. 교회를 이끈 기준을 하나로 딱 짚을 수는 없다. 사도가 직접 썼다는 것만이 기준이었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는 빠졌을 것이다. 예수에 관한 글이 이것뿐이라서도 아니다. 누가복음 1:1이 말하듯 다른 글도 많았다. 분명한 것은 이 책들이 즉시, 그 책 자체를 근거로 하나님의 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이 책들은 존재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저자들에게 쓰게 하시고 교회에게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같은 성령이시다. 이어서 바빙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이는 다섯 가지 뜻을 정리한다. 첫째, 만물을 창조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 둘째, 예언자에게 '임하는' 특별계시. 셋째, 계시의 내용인 율법과 계명.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 다섯째,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는 계시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계시의 내용이다. 그분이 해라면 모든 말씀은 그 햇빛과 같아서, 어떤 말씀도 그분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

1. 사도의 글은 처음부터 권위 있게 읽혔다
2. 공의회는 오래된 관행을 공식화했을 뿐이다

4. 기준: 그 책 자체가 스스로 권위를 드러냄

5.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4:16

편지를 다른 교회도 읽게 하라: 사도 서신의 회람

>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사도행전 15:22

사도들의 결정문이 교회들에 보내짐

>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베드로후서 3:16

바울 서신이 “다른 성경”과 같은 지위를 가졌다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누가복음 1:1

예수에 관한 글을 쓴 사람이 많았다: '유일함'은 기준이 아니다

>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창세기 1:3

말씀 =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

>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편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히브리서 1:3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사야 40:8

말씀 = 영원히 서는 계시의 내용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로마서 3:2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신탁)을 맡았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7:17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복음으로서의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1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11:27

아들이 계시하는 사람만 아버지를 안다: 모든 신지식의 출발점

> 없느니라

📜 5. [109] 초대교회와 교부들: 권위는 당연했고, 저자의 인간성도 보였다

교회는 처음부터 구약에서 시작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스라엘 안에서 모세와 예언자의 글은 즉시 권위를 가졌다. 그러다 '모세에게서 내려왔다'는 구전 전통에 기대는 일이 커지면서 기록된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었다. 예수와 초대교회는 구약을 존중하는 태도는 유대인과 같았지만, 랍비 전통의 지나친 주장은 거부했다. 그러니 교회는 성경 없이 지낸 적이 한 번도 없다. 교부들은 성경 교리를 따로 길게 다루지 않았는데, 권위가 이미 당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이해했고, 때로는 '성령의 받아쓰기' 같은 그림을 쓰기도 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히에로니무스는 표현, 음절, 부호 하나하나가 풍성한 뜻을 담는다고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히에로니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류처럼 보이는 곳을 만나면 저자가 틀렸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사본이 잘못되었거나, 번역자가 실수했거나,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라는 것이다. 한편 몬타누스주의 같은 영적 열광주의에 맞서 성경이 꼭 필요하다고 변호하던 교부들은 저자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몬타누스주의는 2세기 무렵 새로운 예언을 내세운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교부들은 저자들이 미리 조사했고, 지적 수준이 서로 달랐고, 자료와 기억을 썼고, 문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신적 기원에 대한 믿음을 흔들지는 않았다. 이 확신은 교리 진술보다 설교, 변증, 주석에서 더 강하게 드러났고, 이 시기 교회는 영감의 이론보다 정경을 세우는 일에 몰두했다.

1. 교회는 성경 없이 지낸 적이 없다
2. 교부들에게 성경의 권위는 '기정사실'이었다
3. 오류처럼 보이면 사본·번역·내 이해를 먼저 의심하라
4. 교부들도 저자의 조사·기억·문체 차이를 인정했다
5. 이 시기의 관심은 영감 이론보다 정경 확립

> **(이 절에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교부들의 증언으로 교회의 일관된 믿음을 보여 주는 역사 단락

📜 6. [110] 중세와 로마 가톨릭: 영감은 고백하지만 기둥은 교회

중세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다툼이 없었다. 트리엔트 공의회(16세기 중반)도 성경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지만, 바빙크의 표현으로는 영감의 범위를 교회 전통까지 넓혔다. 트리엔트 이후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의 영감론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단어까지 성령이 영향을 끼쳤다는 엄격한 견해가 있었다(아우구스티누스회, 도미니크회, 얀센파). 축자영감을 거부한 견해도 있었다(루뱅의 예수회). 축자영감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생각이다. 성령은 오류만 막아 주셨다는 소극적 견해가 있었고, 종교·윤리 가르침에만 영감을 한정하는 견해도 있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70)는 중도를 택했다. 성경이 거룩한 이유는 교회가 승인해서도, 오류 없는 계시를 담고 있어서도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신앙은 성경이든 전통이든 하나님 말씀에 담긴 모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가톨릭 학자들 사이에서는 '양보론'이 늘고 있었다. 양보론은 영감을 말로는 고백하면서 급진적 역사비평의 결론을 많이 받아들이는 흐름이다. 바빙크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짚는다. 로마 교회는 교리가 결국 교회의 권위 위에 서 있어서 어떤 근대 학문도 받아들일 수 있다. 개신교는 성경 외에 다른 기둥이 없으므로 영감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1. 트리엔트: 성경 신뢰 + 전통에도 권위
2. 트리엔트 이후 가톨릭 영감론은 네 갈래
3. 바티칸 I: 하나님이 저자이시기에 거룩한 책
4. 양보론: 영감은 고백, 비평 결론은 수용
5. 개신교는 영감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 **(이 절에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교회 문서와 신학 흐름을 비교하는 역사 단락

📜 7. [111] 종교개혁 이후: 정통주의의 과장, 근대 비평, 수정된 영감론

종교개혁자들은 영감을 완전히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 적용했다. 루터는 구원론을 기준으로 몇몇 책(에스더,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등)에 호의적이지 않은 말을 하고 작은 불일치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자에까지 이르는 엄격한 영감을 붙들었다. 칼뱅과 개혁파 신앙고백, 개혁파 신학자들도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분명히 고백했다. 그러나 저자의 온전한 참여를 인정하는 유기적 이해는 조금밖에 발전하지 못했다. 비판자들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려던 열심이 지나친 주장을 낳았다. 저자는 필경사, 대필자, 성령의 손과 붓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영감은 연대, 지리, 모든 단어, 심지어 히브리어 모음 부호까지 미친다고 했다. 각주에는 1675년 헬베티아 일치신조 등이 언급된다. 문체의 차이마저 성령이 그때그때 다르게 쓰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적인 예로 1714년 무렵 '성경 자체가 하나님인가'를 다룬 논문까지 나왔다고 한다. 바빙크는 이런 과장이 오랜 성경 공격사 앞에서 이해할 만하다고 본다. 성경 공격은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 왕,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갈라놓은 마르키온, 켈수스와 포르피리오스에서 볼테르, 르낭, 슈트라우스, 바우어로 이어졌고, 결론은 늘 '성경은 오류투성이'였다. 그러자 성경을 지키려던 신학자들이 영감을 깎았다. 종교·윤리만 영감되었다거나, '구원에 필요한 것'과 '역사적·부수적인 것'을 나누었다. 바빙크는 그런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성경에서 교리와 역사는 한 덩어리로 얽혀 있고, 예수와 사도들도 그렇게 구분해 쓰지 않았다. 이 이원론은 결국 슐라이어마허의 '동력적 영감'으로 이어졌다. 영감을 성경 본문의 성질에서 저자의 경건한 성품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자 성경 저자와 신자의 영감은 정도 차이만 남고, 성경은 '계시 자체'가 아니라 '계시의 기록'일 뿐이 된다. 바빙크는 그 밑에 그리스도의 인격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한다. 그런 입장은 불안정해서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역사 연구와 본문비평이 준 유익한 통찰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리츨과 카프탄이 계시가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의 역사에 있다고 본 것은 옳았다. 그러나 카프탄은 '하나님 나라'와 '화해'라는 미리 정한 틀로 성경을 걸러 냈고, 그것이 그의 견해를 망쳤다.

1. 개혁자들: 성경 전체가 완전히 영감되었다
2. 정통주의 과장: 저자 = 붓, 모음 부호도 영감

4. 교리와 역사는 얽혀 있어 나눌 수 없다

5. 슐라이어마허: 영감을 저자의 경건으로 옮김

> **예레미야 36:20-26**
>
>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움: 말씀에 대한 반항의 오랜 뿌리
>
> 20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2 그 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23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

📜 8. [112] 성경의 자기증거에서 출발하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

성경은 영감 교리를 정리된 공식으로 주지 않는다. 그래도 삼위일체나 성육신처럼 확고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교리를 세울 재료를 준다. 이때 예수와 제자들이 구약을 대한 태도가 본보기다. 어떤 학자들은 '귀납적' 방법을 주장한다. 성경의 형성 과정과 실제 모습(현상)을 먼저 조사하고, 거기서 영감론을 끌어내자는 것이다. 정통주의의 틀을 성경에 강요하지 말라는 그들의 우려는 존중할 만하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성경이 영감을 가르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다. 성경이 가르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을 믿듯이 이것도 믿어야 한다. 성경의 '현상'은 성경의 자기증언을 뒤집는 반대 증인이 될 수 없다. 인간의 학문도 어느 부분을 믿을지 정하는 중립적 제삼자가 될 수 없다. 역사비평은 성경의 형성에 대해 통찰은 줄 수 있어도 교리는 낳지 못한다. 『일리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구한 결과를 교리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 걸린 문제는 어떤 '영감 이론'이 아니라 '영감 자체'라고 바빙크는 말한다. 성경은 스스로를

내쉬는')으로도 수동('하나님이 내쉬신')으로도 읽힐 수 있다. 바빙크는 크레머의 사전에 반대해 수동이 맞다고 본다. 근거는 넷이다. (1) '테오스'가 붙은 비슷한 형용사들은 대개 수동이다. (2) 베드로후서 1:21의 “성령에 이끌려”가 수동의 뜻을 지지한다. (3) 성경 밖 용례도 늘 수동이다. (4) 그리스·라틴 교부들이 한결같이 수동으로 읽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먼저 하나님께 '영감되었기' 때문이다. 이 영감은 시인이나 영웅의 영감과 같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창조 세계에 내재하시기에 비슷한 점이 있다. 내재는 하나님이 세계 안에 계시며 일하신다는 뜻이다. 모든 생명과 지혜와 재능이 성령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영감은 일반 섭리가 아니다. 특별계시에 속하는, 구원을 목적으로 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다. 이 사역에는 기억을 돕는 일, 부활의 빛으로 과거를 새로 보게 하는 일, 명령이 없던 문제에 거룩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일까지 들어 있다.

1. 질문: 성경이 영감을 가르치나, 나는 믿나
2. '현상'이 성경의 자기증언을 뒤집지 못한다
3. 역사비평은 통찰은 주나 교리는 못 낳는다
4. 테오프뉴스토스 = 하나님이 '내쉬신'(수동)
5. 영감은 섭리와 닮았지만 구원을 위한 특별 사역

> **디모데후서 3:16**
> 성경 안에서 '테오프뉴스토스'가 나오는 유일한 자리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베드로후서 1:21**
> “성령에 이끌려”: 영감을 수동('받은 것')으로 읽는 근거
>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시편 104: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욥기 33:4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모든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기 32:8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준다: 모든 지혜의 근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사야 11:2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요한복음 14:26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 영감의 한 측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12-14

성령이 과거를 새 빛 아래 보게 하신다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고린도전서 7:25, 7:40

> **고린도전서 7:25**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 **고린도전서 7:40**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 9. [113] 유기적 영감: 동력적 견해와 기계적 견해를 넘어

바빙크는 자기 입장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른다. 출발점은 성경에서 예언자가 말할 때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1:22 그리스어는 “주께서(휘포) 선지자로 말미암아(디아) 하신 말씀”이라고 적는다. 하나님에게는 행위자를 가리키는 '휘포'를, 예언자에게는 통로를 가리키는 '디아'를 쓴다. 예언자에게 '휘포'를 쓴 경우는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1차 저자이고, 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 곧 2차 저자다. 그러므로 영감을 '오류만 막아 준 것'으로 줄여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일어난 감흥'으로 봐서도 안 된다. 또 '오류가 없다'에서 출발해 거꾸로 '그러니 영감되었다'고 추론해서도 안 된다. 바빙크는 바티칸 공의회와 같은 표현을 다시 인용한다. 성경이 정경인 이유는 오류 없는 계시를 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그런 책으로 교회에 맡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빙크가 비판하는 '동력적' 견해는 영감을 저자 안에 종교적 감흥을 일으킨 정도로 본다. 이 견해는 영감을 중생(성령이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과 혼동하고, 성경을 경건 서적 수준으로 내리고, 하나님이 말과 생각과 단어로 계시하셨다는 것을 부정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들'(신탁)이라 불리는 것은 그 내용보다 기원 때문이다. 성경은 영감을 주어서 영감된 것이 아니라, 영감되었기에 영감을 준다. 반대편 '기계적' 견해는 신적인 면만 강조한다. 그래서 저자의 은사, 개성, 시대 배경을 무시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나무토막이 아니라 지성과 도덕을 가진 존재로 다루신다. 바빙크는 근대 학자들이 성경의 인간적·역사적 면을 더 또렷이 보게 해 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유기적 견해만이 성경이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점을 존중한다. 또 하나님이 오랜 세월 한 걸음씩, 더 높이, 더 분명하게 자신을 알리신 교육 방식도 존중한다.

3. 오류 없음에서 영감을 거꾸로 끌어내지 말 것
4. 동력적 견해: 영감 = 감흥, 성경 = 경건서
5. 기계적 견해: 저자 = 나무토막 → 둘 다 부족

마태복음 1:22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화자, 예언자는 통로

>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복음 2:15

같은 '휘포/디아' 구조의 반복

>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16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28:25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요한복음 16:13

성령은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영감은 실제로 '말하는' 일

>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베드로전서 4:11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하라: 신탁이라는 용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16

성경이 '영감된' 것은 내용보다 기원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10. [114] 사람을 통째로 쓰시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되다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이 원래 일하시는 방식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세계를 자신과 구별된 '타자'로 지으셨고, 사람에게 자유, 이성, 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고 설득하신다. 성육신에서도 말씀은 준비 안 된 사람을 갑자기 낚아채지 않으셨다. 성령으로 인간 본성을 미리 빚어 자기에게 맞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 중생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부수지 않고 죄에서 씻어 회복하신다. 영감도 마찬가지다. 성령이 예언자와 사도 안에 들어가 그들을 이끄셨기에 그들은 스스로 살피고, 생각하고, 말하고, 썼다. 베드로후서 1:21은 성령에 이끌려 “그들이 말했다”고 적는다. 그들의 기질, 성격, 지적 수준, 감정과 의지는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성령이 미리 빚어 두신 것처럼 그대로 쓰였다. 조사, 성찰, 기억, 자료 활용 같은 보통 저자의 수단이 다 쓰였고, 시편처럼 개인의 인생 경험이 재료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산문, 시, 역사, 예언, 묵시, 편지, 비유, 우화까지 온갖 장르가 들어 있다. 각 장르는 자기 성격을 유지하므로 그 장르의 논리로 읽어야 한다. 바빙크는 이것을 성육신에 비댄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말씀이 성경이 되었고, 성경은

하나님께 있음이 드러난다(고린도후서 4:7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지만 장절 표기는 없다). 다만 편집자는 이것이 기독론적 등식이 아니라 성령론적 유비라고 주석을 달았다. 성경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1.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고 설득하신다
2. 성령은 저자의 개성을 지우지 않고 쓰신다
3. 조사·기억·자료·인생 경험이 모두 재료
4. 장르마다 그 장르의 논리로 읽어야 한다
5.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 말씀이 성경이 되었다

> **베드로후서 1:21**
> 성령에 이끌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누가복음 1:3**
>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영감 속의 인간적 조사
>
>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 **요한복음 14:26**
> 성령이 기억을 사용하신다
>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 **사사기 9:7-15**
> 요담의 우화: 성경 안의 다양한 문학 장르
>
> 7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왕이 되라 하매 [9]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0]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1]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2]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심: 말씀이 성경이 된 것의 유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전적으로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산물이며, 그와 동시에 전적으로 저자의 창작 활동의 산물이다."

📜 11. [115] 단어까지, 그러나 단어만 떼어 읽지 않게: 완전 영감

유기적 영감은 '기록에 관한' 영감이다. 그러니 영감된 생각과 단어를, 단어와 글자를 갈라놓는 것은 어리석다. 성경이 인격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한다는 강조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인격적' 강조를 기록된 본문을 약하게 만드는 데 쓰면 안 된다. 기록된 복음과 그리스도의 인격은 떼어 낼 수 없다. 사도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도 불가능하다. 또 그리스도에게 권위가 있다면 성경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도 권위가 있다. 그래서 영감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해 받아들여야 하고, '인격적' 이론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충돌한다. 바빙크는 '중재신학'도 비판한다. 중재신학은 19세기 독일에서 근대 학문과 전통 신앙을 조화시키려 한 흐름이다. 대학 강단에서는 영감을 부정하고 교회 설교단에서는 시인하는 식의 머리와 가슴의 분리는 영적 병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그렇다고 본문을 진지하게 받는 것이 단어나 글자 하나하나에

바빙크는 영감 교리가 걸어온 길도 정리한다. 처음에는 구두점까지 넓어졌다가, 그다음 단어, 생각, 주제, 종교·윤리 내용, 구원의 핵심, 저자의 인격으로 차례로 줄었다. 마지막에는 초자연적 영감을 아예 부정했고, 이는 곧 기독교 신앙 자체의 거부로 이어졌다. 물론 성경에는 '중심'과 '주변'이 있다. 모든 구절이 신앙의 중심에 똑같이 가깝지 않고, 모든 책이 같은 무게를 갖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변도 하나님의 생각 밖에 있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영감은 완전하다(plenary). 완전 영감은 성경의 어느 부분도 빠짐없이 영감되었다는 뜻이다.

1. 생각·단어·글자를 갈라놓을 수 없다
2. 사도의 증언을 못 믿으면 그리스도도 모른다
3. 강단과 설교단의 분리는 영적 병이다
4. 영감 범위를 줄이다 보면 신앙 거부에 이른다
5. 중심과 주변은 있지만 주변도 영감되었다

> **(이 절에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앞 절들의 성경 근거(요한복음 10:35 등) 위에서 범위를 정리하는 신학 단락

📜 12. [116] 성경에 대한 반대, 겸손, 그리고 의심과의 싸움

비평신학의 반대는 여전히 강하다. 역사비평의 질문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불신앙에서 나오는 영적·윤리적 적대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성경이 그리스도 안의 계시를 전하는 책이라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과 같은 반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일어서게도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셨다. 성경도 살아 있는 말씀으로 마음을 판단한다.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시녀'인 성경도 비방을 함께 받는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 늘 불신앙은 아니다. 그래도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성령이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 바빙크는 이 적대감이 근대 비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죽은 정통주의' 시대의 죽은 믿음 속에도 똑같이 있었다. 겉모양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그래서 첫 의무는 내 안의 적대감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계율이 첫째도 둘째도

라고 외쳤다. 그렇다고 신자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도 의심을 일으키는 요소가 많다. 믿음은 겉모습에 맞서 싸우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싸움을 넘어선 사람은 없다. 지적 문제를 숨길 필요도 없다. 많은 문제가 끝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난제가 요즘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수와 사도들, 아타나시오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루터, 칼뱅은 그 난제들을 알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했다. 모든 문제가 풀릴 때까지 믿음을 미루겠다는 사람은 결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다. 지식의 출발점 자체가 신비로 가득하다. 음식이 식탁에 오르는 과정을 다 이해해야 먹겠다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불신앙은 신비를 줄여 주지 않고 오히려 늘리며, 마음의 불안도 키운다.

1. 성경은 그리스도처럼 반대를 받는다
2. 성경이 우리를 판단한다
3. 적대감은 비평에도, 죽은 정통에도 있다
4. 신자도 의심한다, 믿음은 싸움이다
5. 다 풀리면 믿겠다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 **누가복음 2:34**
>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고 일어서게 하는 표적: 반대는 예상된 일
>
>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 **히브리서 4:12**
>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
>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 **디모데후서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0:5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평생의 싸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야고보서 1:25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 있다: 듣기만 하는 믿음 경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2: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책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로마서 8:24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믿음은 다 보기 전에 시작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요한복음 20:29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경이 우리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 13. [117] 반론에 답하다: 성경의 목적, 학문, 역사, 아직 남은 문제

그래도 반론에 대한 답은 있다. 유기적 견해는 저자의 어떤 요소도 버리지 않으므로 언어와 문체의 차이, 자료 사용, 기억, 인생 경험을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역사다.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여기에도 맞다. 평범한 삶도 하나님의 생각을 섬길 수 있다. 그리스도가 피곤하고 우셨듯이, 성경은 바울의 겉옷 같은 사소한 일도 빼지 않는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교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성경은 학문 안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나 팔레스타인 지리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려고 쓴 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학문과 무관하지도 않다. 바로니우스 추기경은 “성경은 하늘(천체)이 어떻게 가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늘(천국)에 가는지를 말해 준다”고 했고, 이 말은 자주 오해되었다. 성경은 학문과 예술에도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에 권위를 주장한다. 창조, 타락, 인류의 하나 됨, 홍수, 언어의 기원 같은 성경의 주제는 다른 학문에도 아주 중요하다. 동시에 바로니우스의 말에도 진리가 있다. 성경의 사실들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려고 전해졌다. 성경은 학문의 정밀한 언어가 아니라 관찰과 일상의 언어로 말한다. 저자들은 천문학이나 의학에서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성경에 근대와 다른 고유한 역사 서술 방식이 있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역사성 질문을 피하면 안 된다. 성스러운 역사도 역사이지 전설이 아니다. 근대인이 기대하는 정확도가 없더라도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아직 남은 숙제도 솔직히 인정한다. 부자와 나사로가 실제 인물인지, 욥기·전도서·아가의 역사적 가치를 어디까지 둘지, 예언이 사실적인지 상징적인지는 경우마다 판단해야 한다. 바빙크는 이렇게 장을 맺는다. 성경은 가장 높은 것을 인간의 말로 말하는 책이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책이고, 오래되었지만 낡지 않으며, 늘 젊은 생명의 말씀이다.

1.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

3. 목적: 구원에 이르는 지혜(과학 교과서 아님)
4. 그러나 삶과 학문 모든 영역에 권위가 있다
5. 일상 언어로 말하지만 역사는 역사다

디모데후서 4:13

바울의 겉옷과 책: 일상의 사소한 일도 성경에 담겼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로마서 15:4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한 것: 성경의 의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16-17

교훈·책망·바르게 함·의로 교육: 성경의 쓰임새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5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의 진짜 목적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시편 119:105

발의 등, 길의 빛: 학문과 예술에도 빛(장절 표기 없이 쓴 표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 **이사야 40:8**
>
>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장의 마지막 문장(장절 표기 없음)
>
>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테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이 성경을 '숨을 내쉬듯' 직접 내보내신 일로,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뜻이다.

자기증언(자증)
성경이 다른 권위의 보증 없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한다는 뜻이다.

정경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책들의 목록이다. '자'(척도)라는 말에서 왔다.

외경
70인역 등에 들어 있지만 개신교가 정경으로 받지 않는 유대 문헌(마카베오서, 집회서 등)이다.

유기적 영감
성령이 저자의 인격, 은사, 기억, 문체를 지우지 않고 통째로 도구로 쓰셔서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글이 되었다는 견해다.

기계적 영감
저자를 성령의 붓이나 받아쓰는 사람으로만 보고 인간 쪽 영향을 무시하는 견해로

동력적(역동적) 영감
영감을 본문의 성질이 아니라 저자 안에 일어난 종교적 감흥으로 보는 견해(슐라이어마허)로, 바빙크가 거부한다.

축자영감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생각이다. 바빙크는 단어까지의 영감은 지키되, 단어를 따로 떼어 신비한 뜻을 찾는 읽기는 경계한다.

완전 영감(plenary)
중심이든 주변이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영감되었다는 뜻이다.

무오성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성질이다. 바빙크는 이것을 영감의 결과로 보고, 영감을 증명하는 출발점으로 쓰지는 말라고 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며, 이 자기증언은 구약 예언자, 예수, 사도들을 거쳐 일관된다.
- 영감은 '하나님이 내쉬신' 것이다. 하나님이 1차 저자, 사람이 2차 저자이고, 그 범위는 성경의 모든 부분과 단어에 미친다.
- 바른 이해는 기계적(받아쓰기)도 동력적(감흥)도 아닌 유기적 영감이다. 성령은 저자의 인격 전체를 지우지 않고 쓰셨다.
- 성경에 대한 반대의 뿌리는 마음의 적대감이므로, 성경 앞에서는 겸손과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
- 성경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일상 언어로 말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6편 · '하나님의 감동으로' · 영감이란 무엇인가
- 성경론 7편 · 사람의 글, 하나님의 말씀 · 유기적 영감
- 성경론 9편 ·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다 · 영감 교리의 역사와 비평
- 성경론 10편 · 66권은 누가 정했나 · 정경
- 성경론 12편 · 성경은 스스로 빛을 낸다 · 자증성
- 성경론 23편 · 성경의 권위 없이 그리스도도 없다 · 다섯 책의 합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